

아시아 안의 여성신학

기독교학과 1689

목 차

I. 서론	1
II. 국내 ‘아시아 여성신학’의 전개	1
1. 한국여성신학의 시작과 지평확대	1
2. 아시아 여성신학 학위논문 현황	3
3. 아시아 여성신학 국내 단행본 현황	4
III. 아시아 여성신학의 필요성	4
1. 무엇이 ‘아시아’인가	4
가. 지리적인 객관 공간으로서의 아시아	5
나. 인식적인 주관 공간으로서의 아시아	5
다. 새롭게 구성되는 아시아	6
2. 아시아 안의 여성신학	7
IV. 결론	8

참고문헌

I. 서론

본 소고는 생태여성신학의 뿌리인 힐데가르트 폰 빙엔(Hildegard von Bingen)의 고장인 독일과 서유럽 기독교공동체를 찾아 떠났던 여행에서 받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힐데가르트를 공부하러 독일에 왔다는 말에, 아이빙겐 수녀원(Eibingen Abbey)에서 힐데가르트 유적을 관리하던 한 수녀님은 ‘아시아에도 종교가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아시아인인 당신은 왜 기독교, 독일수녀를 연구하나요?’ 라고 물어왔다. 여러 말로 얼버무려 대답했지만, 그 뒤로 유럽과 미국을 방문하면서 기독교가 참 낮은 ‘서양종교’라는 것을 발견했고 현재 배우고 있는 신학에서 아시아인, 그중에서도 여성은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이에 종교 ·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풍토가 있는 아시아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또 어떤 신학이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다 ‘아시아 여성신학(Asian feminist theology)’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 아시아 여성신학은 1990년대 이후로 연구논문이 감소하였고, 학위논문도 많이 나오지 않아 아시아 여성신학의 후속세대를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에서 아시아 여성신학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그 학문적 필요성을 재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아시아 여성신학’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및 정기간행물을 정리하는 것을 일차적인 연구방법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아시아 여성신학의 필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기존 아시아 신학과 여성신학의 한계점을 찾아보고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아시아 여성신학에 대한 기초적 논의를 위한 토대를 한국 여성신학자들과 여성학자들의 글에서 찾아본다.

II. 국내 아시아 여성신학의 전개

1. 한국여성신학의 시작과 지평확대

여성신학은 1960년 미국에서 발레리 사이빙 골드스타인(Valerie Saving Goldstein)이 “인간의 상황 - 여성적 관점에서” (A Human Situation - A Feminine View)라는 글에서 여성 경험을 신학의 자료와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최초로 주장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어진 메리 데일리(Mary Daly)의 여성억압적 교회제도와 신학의 남성중심성에 대한 문제제기, 로즈마리 류터(Rosemary Radford Ruether)의 새로운 전통 세우기, 레티 M. 러셀(Letty M. Russell)의 목회와 교육의 관점에서의 여성해방, E. S. 피오렌자(Elizabeth Schussler Fiorenza)의 성서 해석에 대한 급진적 비판과 새로운 해석 등의 논의들의 전개와 함께 서구 여성신학은 주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여성 억압의 근원으로 보고 성차별을 비판하며 성장했다.

한국에서 여성신학은 개별 여성들이 미국여성신학을 접하고 소개하면서 알려졌고, 이를 수용한 몇몇 여성들이 신학을 전공한 여성들의 조직을 만들어 한국에 여성신학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ACWC)의 후원을 받아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한국여신학사협의회’ 개최를 성사시켰고, 그 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0년 4월 20일 ‘한국여신학자협의회’¹⁾(이하 여신협)가 창립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여성신학은 본격적으로 조직되었고, 여신협은 거의 10년 동안 독보적인 활동을 펼쳤다.²⁾

한국여성신학은 초기부터 아시아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ACWC의 후원에 의존한 것도 있을뿐더러 이선애 목사의 영향이 컸다. 이선애는 아시아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지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받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아시아 여성신학지 1982년 12월에 *In God's Image*는 창간하고, 종교문화적 영향아래 있는 아시아 여성들에게 종교와 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자료를 제공하는 아시아여성신학자료센터(AWRC)를 설립한 바 있다.

여신협은 1983년 2월 1-3일 동안 ‘제1차 아시아여성신학정립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국여성신학의 과제 가운데 하나로 아시아 교회여성과의 협동을 들며 “여성신학이 여성의 비인간화의 현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볼 때에 서구의 역사, 문화, 사회와 아시아의 역사, 문화, 사회는 너무나 다르다. 아시아 여성신학의 출발은 서구보다 복합적으로 비인간화되어온 것이 아시아 여성들이라는 점은 누구나 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위로 아시아여성신학정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아시아여성신학정립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서도 한국여성신학의 지평을 아시아로 확대한 것을 알 수 있다.³⁾ 그러나 ‘아시아 여성신학’을 정립할 정도의 축적된 내용은 아니었고 탈서구라는 맥락 속에서 ‘한국적’ 여성신학을 정립해가는 정도였다.⁴⁾ 다음 해 ‘2차 아시아여성신학정립협의회’에서는 사례발표와 해외 한국 여성 실태보고를 듣고 사회분석과 신학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4차부터는 ‘한국여성신학정립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2017년 25차까지 진행되었다.

한편 1989년 아시아 여성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한국 여성신학자들은 여성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⁵⁾’을 설립한다. 기여원은 설립의 취지대로 여성신학 강좌와 에큐메니칼 영어강좌를 열고 아시아 종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연구활동영역을 넓혀갔다. 1996년에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은 아시아 행동신학 세미나를 주관하고 1997년에는 아시아 여성신학 교재 발간을 위해 집필진을 구성, 2년 만에 『생존과 해방을 향한 여정』을 펴 낸다.⁶⁾ 이 책은 우선적으로 아시아 여성들을 위한 여성신학 교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더불어 한국여성신학을 알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교재가 한국어로 출판된 점과 한국 여성신학자들이 아시아적 맥락에서 자신의 신학을 전개했을 뿐 다른 아시아 여성신학자들의 글을 실거나 아시아 여성들과의 교류 속에서 쓰여지지

1) 신학을 공부한 모든 여성들이 함께 모이자는 취지로 ‘여신학사’라고 부르던 명칭을 1980년 4월 21일 ‘한국여신학사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여신학자’로 수정하였다.

2) 최만자, 조선훈, 「1980년대 한국기독교여성의 여성신학 수용과 전개 그리고 그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3) 한국여신학자협의회 20년사위원회 편, 『여신협 20년 이야기』, 서울:여성신학사, 37-41, 2000

4) 위의 책 37-41. 한국여성신학의 정립이 요구되던 시점에 ‘아시아여성신학정립협의회’라고 칭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여신협의 당시 총무였던 정숙자는 이 협의회의 보고서에서 “이 협의회는 서구 대 아시아라는 의미에서 아시아 여성신학정립협의회라고 이름 붙인 것이지 아시아의 모든 여성신학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붙인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5) 기여원의 본래 출발은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이었는데 1999년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으로 변경한다.

6) 정숙자 외 10인, 『생존과 해방을 향한 여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인다.

2. 아시아 여성신학 학위논문 현황

국내에서 ‘아시아여성신학’ 만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이 많지 않다. 현재 ‘아시아여성신학’ 을 주제로 발표한 학위논문은 총 5개로, 모두 석사학위 논문이며 4개는 1990년도에 발표되었고 마지막 1개는 2009년에 발표되었다.⁷⁾ 키워드 범위를 넓혀 찾아봤을 때는 55개의 학위논문이 검색되는데, 이는 ‘아시아신학’ 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458개, ‘한국여성신학’ 으로 검색했을 때 683개, ‘여성신학’ 으로 검색했을 때 1,514개의 학위논문이 검색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아시아 여성신학’ 을 중심 주제로 작성한 5개의 논문이 각각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짧게 살펴보면, 1994년에 윤나미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아시아 여성신학의 마리아 이해」는 서구 가톨릭 전통 신학의 마리아 교회가 지니는 성차별적이며, 여성 억압적인 요소들을 아시아 여성 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로즈마리 류터의 여성해방적 시각에서의 마리아 이해를 분석하고 아시아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그 한계점을 지적하였다.⁸⁾

1995년에 조운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서 「아시아의 생태여성해방 신학 모색을 위한 한 연구」를 통해 아시아 여성에게 있어서의 생태학이 곧 경제학임을 밝히며, 아시아 여성의 투쟁을 신학화하기 위해 생태여성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는 “아시아 여성들의 신학은 그러므로 제3세계적이고 아시아적이고, 여성적인 신학일 수밖에 없다. 아시아 생태여성해방 신학의 출발점은 나날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이다. ‘생존’ 이 이들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해방이다. 이것은 여성적인 동시에 생태적인 생존을 의미한다.”⁹⁾ 고 하였는데 이는 마치 ‘제3세계적’, ‘아시아적’, ‘여성적’ 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며 아시아 여성 모두가 공유하는 토대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다시금 서구, 혹은 제1세계의 오리엔탈리즘과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이는 다양한 아시아 여성간의 차이를 놓칠 위험이 있다.

2009년 강희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아시아 여성신학자 이선애 목사의 생애와 신학」를 통해 한국에서 아시아여성신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이선애 목사의 생애를 신학화하고 그 의의를 정리했다.¹⁰⁾

3. 아시아 여성신학 국내 단행본 현황

7) RISS의 학위논문 검색 결과로 석사논문만 5개이다. 국회도서관 검색결과는 4개의 논문(앞의 검색결과와 중복)이다. RISS에서 ‘아시아여성신학’의 넓은 범위로의 검색결과는 55개로, 그중 신학논문은 마리아론에 대한 성서학적 논쟁과 목회상담학 논문이 주를 이룬다. 5개의 석사학위논문은 다음과 같다. 윤나미, 「아시아 여성신학의 마리아 이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4). 조운정, 「아시아의 생태여성해방 신학 모색을 위한 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5). 설충수, 「아시아 여성신학의 기독교적 고찰」(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7). 최재균, 「로즈마리 류터와 아시아 여성신학자들의 마리아론 재해석」(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2000). 강희수, 「아시아 여성신학자 이선애 목사의 생애와 신학」(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9).

8) 윤나미, 「아시아 여성신학의 마리아 이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4.

9) 조운정, 「아시아의 생태여성해방 신학 모색을 위한 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5

10) 강희수, 「아시아 여성신학자 이선애 목사의 생애와 신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9

한글로 된 국내 아시아 여성신학 단행본의 현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다. 1983년 한국 여성신학자협의회에서 발간했던 『한국 여성신학의 과제 : 아시아 여성신학 정립협의회 보고서』가 ‘아시아 여성신학’을 주로 다뤘던 책이었고, 아시아 신학세미나 자료집을 번역하여 엮은 『아시아의 상황과 신학』(1987)의 마지막 장 ‘IV. 아시아에 있어서의 여성해방’에서, Marianne Katoppo가 쓴 짧은 글 ‘여성신학의 동기’와 ‘아시아에 있어서의 여성해방’에 아시아 여성으로서 저자의 개인적인 서사와 아시아 여성해방신학에서 말했던 여성의 생물학적 특질과 하나님이해를 연결시킨 신학과 앞선 학위논문에서 나왔던 새로운 마리아 이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1990년대에는 정현경의 유니온 신학대학의 박사 논문 「Struggle to be the sun again」을 번역하여 한국에서 출간했던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 : 아시아 여성신학의 현재와 미래』(1994)이, 그리고 앞서 보았던 아시아여성신학자료센터에서 발간한 이선애의 『아시아 종교 속의 여성 : 아시아 여성의 현실과 신학』(1995)과 『하나님의 형상대로』(1995)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1997년 이은선이 지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국여성신학 : 유교, 페미니즘, 교육과의 대화 속에서』는 유교와 여성신학, 여성학과 신학, 에코페미니즘 등의 주제를 통해 한국 여성신학적 방법론을 모색하고, 왕양명의 인간교육을 위한 종교 철학적 근거와 동양의 효윤리, 간디의 비폭력주의를 다루며 아시아의 고전 철학들을 21세기 한국 여성신학과 함께 다루었다. 정숙자 외 10명의 공저로 지어진 『생존과 해방을 향한 여성』(1999)은 한국 여성들을 위한 아시아 여성신학교재로 10명의 한국여성신학자들에 의해 편찬되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한국여성신학 및 아시아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본 성서해석, 여성의 삶, 그리고 21세기를 위한 제언을 담은 최만자의 『여성의 삶, 그리고 신학 : 1980-1990년대 한국여성신학의 주제들』(2005)이 있다.

아시아 여성신학에 대한 논의들이 대부분 2000년대 이전에 그쳤고, 그나마도 대부분 세미나 혹은 협의회 보고서를 편찬한 책이거나 학위논문이었다는 점, 또한 많은 아시아 여성신학자들의 책 역시 잘 번역되어 들어오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 아시아 여성신학의 필요성

국내에서 논의되는 아시아 여성신학의 흐름을 보면 그다지 활발하지 않고 그나마도 21세기에 들어서는 담론이 더욱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아시아 여성신학이 필요하지 않기에 사라지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측면에서인지를 짧게 살펴보겠다.

1. 무엇이 ‘아시아’인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아시아는 현재 46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으로 전 세계 육지의 30%를 차지하고 오늘날 인구의 60% 이상이 살고 있는 곳이다. 아시아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등 6개의 단위로 나뉘거나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라는 3개의 단위로 세분한다. 또한 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종류는 그 수를 파악하

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데, 이는 국가뿐 아니라 인종, 민족에 따라 사용되는 언어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필리핀은 100개가 넘게, 인도네시아는 6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한다.

현재의 문화를 기준으로 중국/한국/일본의 동아시아지역(소위 '극동'), 남아시아(인도 반도/인도아대륙), 서아시아의 이슬람 지역(북아프리카와 터키어소위 '중동'), 그 외 인도일대, 인도차이나지역(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등으로 나뉘며, 이 문명들 간의 문화와 구성원(인종)의 차이는 절대 같은 대륙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난다. 문화나 혈통으로 볼 때 서남아시아(통칭 중동)만 해도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오히려 유럽과 연관이 많다.

또한 식민화의 역사 역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 서양제국주의에 의한 식민경험이 서로 상이한 영향력을 형성하여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각인되어 있는가 하면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은 공산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아시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 유산을 가졌다.

종교적으로는 어떨까. 불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즉 세계 4대 종교의 발상지인 만큼 아시아 지역에서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가 문화적인 혼합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외에 일본의 신토이즘과 필리핀의 기독교 등이 있어 매우 다양한 문화적 토대 속에 서로 얹혀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시아' 인가, 아시아는 비(非)아시아권과 다른 분명한 특질을 가지는가.

가. 지리적인 객관 공간으로서의 아시아

위와 같은 사전적 정의는 아시아라는 범주 속에 묶이는 지역적 공간의 물리적 광대함과 문화적 다양성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아시아 내부 단위들 사이 관계의 복잡성과 변화의 역동성은 지리적 공간으로서 '아시아'의 지형과 경계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리적으로 보자면 아시아라 불리는 곳은 유라시아라는 하나의 대륙일 뿐 유럽이나 아시아 자체로서의 의미는 없다. 또한 지리적으로 볼 때도 아시아는 너무나 거대하기에 자연에 의해 서로 간에 단절된 경우가 유럽에 비해 훨씬 많다. 즉, 유럽은 기독교, 로마 등 그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의해 어느 정도 단일체로 취급될 수 있는 반면, 유럽보다 더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있는 아시아에는 그러한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유럽에 대응되기는 힘들다. 그나마 동남아, 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대체로 지리적인 근접성이나 기후 등의 공통분모로 묶인 범주이지만, 아시아라는 단어에는 그런 것이 일체 없다. 다시 말해 아시아는 '유럽을 제외한 유라시아'이고, '유럽 측에서의 타자'라는 매우 유럽 중심주의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나. 인식적인 주관 공간으로서의 아시아

이 지역학적 용어를 지금처럼 사용하고 인식하게 된 것은 유럽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때였다. 항해술과 교통의 발달로 더 넓은 세계와의 접촉이 빈번하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교류해 왔던 지역과 그 외를 구분하려는 의식이 생겼고, 그들은 곧 자신들에게 익숙한 ‘전통적 지역’에는 ‘유럽’, 나머지 지역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유럽이 근대화의 시기동안 비유럽지역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친 과정에서 이 이름은 세계적으로 일반화 되어 붙여졌다.

각 지역별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러 나라들을 뭉뚱그려서 아시아라고 지칭한 것에는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한몫 했다. 그 예시로는 같은 유럽인들끼리도 서로를 비하하기 위한 표현으로 아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는데, 근대 유럽에서는 서유럽 지역 이외에 대한 편칭으로 북유럽, 동유럽 지역을 아시아라고 지칭하기도 했고 일부 서유럽인들은 경제, 정치적으로 낙후하다고 여겨진 동유럽 국가(발칸 반도 국가들과 폴란드), 혹은 유럽 바깥에서 유럽으로 들어온 민족이 세운 국가들(헝가리와 핀란드)을 모멸적인 호칭으로서 ‘아시아’라 불렀다. 일부 반러시아 성향 서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러시아를 지금도 유럽이 아닌 아시아라고 부른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념사적으로 ‘아시아’는 ‘서구인’에 의해 강제로 부과된 개념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비서구적 타자성의 기표로서의 ‘아시아’는 서구의 시선을 통해 생산되고 소통되는 내용물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학(Asian Studies) 개념은 때때로 일종의 신식민지 지식으로 간주되고, ‘아시아연구’라는 개념도 서구인에 의해 소유되는 아시아에 대한 지식이라는 점에서 신식민주의의 형태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구인들에 의해 형성된 이러한 아시아 개념은 사실 항상 같은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각종 오리엔탈리즘이 아시아의 신비화나 주변화의 교차 지점에서 다양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때로 아시아인의 입장에서 ‘아시아’라는 용어는 보다 강력한 긍정적 가치를 가진 관념으로 표상되기도 한다. 아시아라는 관념과 개념은 식민화의 역사 속에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표현으로 이해되고,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아시아는 열등함이나 방어적 성격이라는 부정적 규정성을 탈피하여, 유럽 혹은 미국 등과 대등한 세력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표방되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처럼 ‘아시아’라는 관념은 인식에 있어 어떠한 관점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나 동기에 따라 특정한 가치평가를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인’으로 규정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전복적인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새롭게 구성되는 아시아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성(Asia-ness)’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건 아시아인들에게 공유되는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시아인들 사이에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너무나 엄청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공통된 경험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아시아는 하나의 고정된 지역 혹은 장소로 규정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보편주의적이고 본질주의적인 오류에 도달하게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렇기에 일차적으로 ‘아시아’는 지리적으로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그 경계가 변화하는 공간이며,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과 공동체로서 인지적 공간에서 상상되거나 비판적으로 형성되는 정치적인 구성체라 할 수 있다. ‘아시아’ 혹은 ‘아시아인들의 공통경험’이란 본질적으로 소여된 것이거나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시아’ 혹은 ‘아시아적인 것’을 동질화하는 관념이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동질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요청된 관념이라 할 수 있다.

2. 아시아 안의 여성신학

정통신학에 담긴 인간의 경험은 당시의 지배계층인 “제1세계, 백인, 중산층, 남성들에게 기반을 둔” 것이었다. 현대에 와서 이런 위로부터의 신학 방식이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1950년대에 들어서야 신학이란 ‘상황(context)’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지했다. 위로부터의 신학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말이다. 따라서 여성신학의 출발점은 여성의 경험이 된다. 아시아 여성의 삶의 현장에서, ‘여기, 그리고 지금(here and now)’ 고백되는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가. 아시아 여성들의 삶의 경험은 다양하고 풍부하며 무궁무진한 자료를 제공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는 모든 종교의 고향이며, 문명의 발상지이고 험난한 산맥마다 저마다의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아시아 여성들은 독특한 역사적 상황에서 얻어진 귀한 경험들을 기독교 신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아시아 여성이 삶의 상황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고통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자국이 속한 문화적, 종교적 맥락 속 억압적인 가부장제에 의한 피해가 그 1차적 원인이라 할 수 있고, 해방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제국주의적 기독교는 오히려 서구 중심적이고 권위적이며 가부장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도그마를 형성하여 이중적 고통을 지웠다. 여기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자본주의는 아시아 여성의 빈곤문제를 심화시켰다. 이런 맥락 속에서 아시아 여성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소리를 크게 내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언제나 겸손을 미덕으로 아는 억압적 사회에 적응된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이 터부시된 종교의 도그마적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또한 영어권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일부 나라들을 제외하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세계 진출 어려웠기에 아시아 여성들의 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없었던 원인을 들 수 있다.

더불어 학문의 영역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여전히 서구 여성주의가 중심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비(非)서구, 그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여성학자들의 이론 작업과 실천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시아 여성신학’을 서구 대 비(非)서구(아시아), 지구적인 것(global) 대 지역적인 것(local), 동일성 대 차이 라는 이분법 구도 안에서 고찰하는 것을 넘어, 보다 과정적인 범주로 규정할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이유로 초기 민중신학자들을 비롯하여 1세대 아시아 신학자들은 ‘반서구신학이 아시아신학’ (Anti-theology is doing theology for us!)이라는 선언을 했지만, 그것은 너무 단순하고 환원적인 해체신학이었고, 그 비판과 해체의 방법론도 대부분 서구적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었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 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시아신학은 토착화¹¹⁾ 신학(logos)과 해방신학(praxis)이라는 서구신학의 이원론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아시아’라는 구체적 현장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차이를 지닌 아시아 여성 주체들의 연대적 실천에 입각한 새로운 여성주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아시아 (안의) 여성신학’을 제안한다.

1982년 이래 In God's Image 출판으로 아시아 여성들은 아시아 여성들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로써 새로운 해석학적 틀을 마련하는 장을 얻었다. In God's Image는 아시아 여성들의 독특한 삶의 자리에서의 생존과 자유를 위한 고뇌와 투쟁을, 그리고 소망과 기대를 신학화하려고 노력했다. 이경숙은 이것에서 나타난 아시아 여성들의 경험을 ‘첫째로, 아시아 여성들은 다중적인 억압적 상황에서 살고 있’으며, ‘둘째로, 아시아 여성들은 만성적인 가난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고, ‘셋째로, 이들이 다원 종교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종합하여 설명했다.¹²⁾

한국의 아시아여성신학 정립을 위한 역사들에서 나타나듯이, 아시아 여성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중요하다. 여성 집단들의 주체성과 현장(context)을 중요시하는 것은 곧 여성 경험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존중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 (안의) 여성신학’으로 한 번 더 그 특수성을 재범주화하려는 것은 단일하지 않은, 그러나 공통된 아시아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우리의 연대를 이루고자 함이며, ‘아시아 여성’으로서의 이 연대는 다시 범여성의 초국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임시 범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성신학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신학이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 백인여성들의 신학이나 여타 여성 집단들의 신학도 마찬가지로 보편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모두 파편화된 경험의 특수성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일치를 이루며 대화와 연대가 가능할 것인가. ‘아시아 여성’이라는 느슨한 테두리를 서구여성신학의 주류 속에 다시 한 번 범주화할 때 그 안의 다양하고 독특한 아시아 각 문화권의 특수성은 함께 읽혀질 수 있고, 우리는 ‘아시아 여성’으로서 연대할 수 있다. 연대라는 것은 각 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독립성을 전제로 하되 공동의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IV. 결론

사적인 경험에서 느낀 ‘아시아 여성신학’의 부재와 그 필요성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에서 나타난 여성신학, 그중에서도 특별히 아시아 여성신학을 주제로 한 단체들의 설립과 활동, 단행본과 후학양성의 지표를 보여줄 학위논문을 찾아 보았다.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아시아 여성신학담론의 공백을 발견하였고, 어느 순간 운동은 실천적 ‘현장’에, 신학은 학문적 ‘제도권’에만 머무르게 된 현실을 마주했다.

본 소고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1세대 아시아 여성신학자들이 아시아의 현장을 떠나 제 1세계의 신학의 자리로 넘어감에 따라 컨텍스트를 잃어버린 아시아 여성신학이 주체의

11) 토착화라는 단어 중 토착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대대로 그 땅에 산다’는 뜻이다. 이에 토착화라고 할 때에는 ‘그 땅에 아주 정주하는 것’ 곧 ‘땅에 뿌리를 박는 것(root in)’을 의미한다. 이에 교회 내에서 토착화라는 개념은 교회가 유럽문화권을 넘어 확대됨에 따라 ‘그 지역의 것’이라는 뜻의 ‘Indigenisatio’ 또는 ‘문화를 수용한다’는 뜻의 ‘Inculturation’라는 단어들 사용되었다.

12) 이경숙, 「아시아 여성신학의 해석학적 과제」, 기독교사상:대한기독교서회, 1996.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객체로서 이론화되고 고정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되는 것 같다. 이는 오히려 지식인들에 의해 현장에서 살아가는 아시아 여성들의 주체성이 왜곡되고 더욱 침묵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기에 아시아 (안의) 여성신학안에 다양하고 독특한 여성들의 목소리와 경험이 많이 들어오고 이것이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연대와 희망으로 나타나는 프락시스가 나타나길 바란다.

참고문헌

1. 국내자료

- 저자. 『단행본제목』. 출판사장소: 출판사, 출판년도.
- 저자. 「논문제목」. 출판사장소: 출판사, 출판년도.
- 강희수, 「아시아 여성신학자 이선애 목사의 생애와 신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9.
- 설충수, 「아시아 여성신학의 기독교론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7.
- 윤나미, 「아시아 여성신학의 마리아 이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4.
- 이경숙, 「아시아 여성신학의 해석학적 과제」, 기독교사상:대한기독교서회, 1996.
- 정숙자 외 10인, 『생존과 해방을 향한 여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조윤정, 「아시아의 생태여성해방 신학 모색을 위한 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5.
- 최만자, 조선혜. 「1980년대 한국기독교여성의 여성신학 수용과 전개 그리고 그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최재균, 「로즈마리 류터와 아시아 여성신학자들의 마리아론 재해석」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2000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20년사위원회 편, 『여신협 20년 이야기』, 서울:여성신학사, 2000